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화) 06:00 < 8.1.(화) 석간 > 배포 2023. 7. 31.(월)

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 여름철 재난 대비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안전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8. 1.(화) 남부발전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지난 7월 중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침수된 건설현장의 복구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폭염·태풍 등에도 인원 및 시설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세종 지역의 전력과 열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설비로, '21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3%로 '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 중이다.

강경성 2차관은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발전소 건설현황, 근로자·시설 안전관리 대책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받은 주 제어건물의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였다.

강 차관은 "전력시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인 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장마철 이후 폭염과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침수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빈틈없이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전도(넘어짐) 감시, 드론을 활용한 높은 장소 작업자 점검(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관계기관들의 관련 투자가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류진선 (044-203-38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